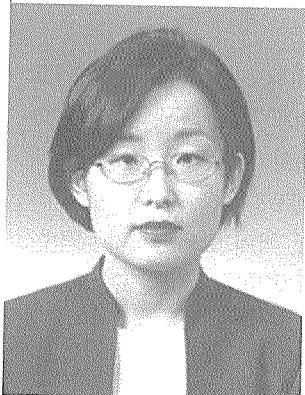


인터뷰 ② - KISTI 황혜경 사서

IFLA 글래스고 대회가 끝나고도 한참을 지난 후에 *IFLA Express 8*을 받아보았다. 페이지를 넘기던 중 눈에 들어오는 기사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IFLA와 OCLC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전문직 연수 프로그램의 2003년 대상자 5명 중 한 사람으로 우리나라 황혜경 사서가 선발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기사를 읽어보고 KISTI에 근무 중인 황혜경 사서에게 연락을 취했다. 이번 인터뷰는 그 결과로 짤막하게나마 이번 프로그램에 선정된 이유와 생각에 대해 이메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작년 IFLA 보스톤대회의 fellowship으로 한성대학교 이미화 사서가 선발된 것에 이어 이번 황혜경 사서의 선발을 계기로 우리나라 사서들의 국제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정리 : 심효정



KISTI 황혜경 사서

◆ 국제 프로그램에 선발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먼저 IFLA/OCLC Early Career Development Fellowship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개발도상국가에서 활동 중인 사서나 정보전문직 종사자 중 초기 경력자 5명을 선별하여 연수시키는 지원 프로그램으로서 1999년에 개설된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최신정보기술교육, 지식관리, 도서관 및 정보센터 경영 및 운영, 도서관간 상호협력에 관한 교육제공, OCLC 주관 세미나 및 워크숍 참가, 미국 의회도서관 등 북미지역의 각종 도서관 견학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년(2003년)에는 4월 28일부터 5월 23일까지 4주간에 걸쳐 OCLC Institute(미국 오하이오 주 더블린본부)에서 연수를 하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에 선정되면 항공료, 교통비, 숙박 및 교육비용 전액을 IFLA/OCLC에서 제공합니다.

◆ 신청 동기와 신청 방법 등을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지난 2001년 6월에 한국정보관리협회와 한국기록관리학회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제2회 국제 세미나 지식경영과 메타데이터 활용"에서 지식경영과 메타데이터에 관한 국제적 전문가인 OCLC 연구소의 에릭 절 연구소장과 석좌교수인 화웨이 리 박사가 초청강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분들께서 OCLC Fellowship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해 주셔서 저도 그때 처음으로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후 OCLC 웹사이트 (<http://www.oclc.org/institute/resources/fellowships/ifla/>) 검색을 통해 응모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응시했었습니다.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조건은 1998년 8월 이후에 문헌정보학 혹은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현장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단, OCLC에서 제시한 개발도상국가 시민에 한하는데 우리나라로 여기에 포함됩니다. 내년에는 4월 25일까지 응모를 마감합니다. 5월에서 7월 사이에 선발을 하게 되고 8월에 발표합니다. 거기에 선발이 되면 역시 다음 해(2004년)

4월부터 5월 사이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응모할 때에는 영문 이력서, 영문 에세이와 세 사람의 영문추천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선발되신 분들은 어떤 활동을 하게 되십니까?

참가자들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OCLC/IFLA에서 제공하는 교육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기타 활동이라면 참가자들은 자기 나라의 도서관 현황에 대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나라 도서관 현황에 대해 발표해야 할 것입니다.

◆ 우리나라 2006년 IFLA 대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 도서관계나 사서들의 국제적인 활동은 소극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도서관의 국제적 활동의 필요성이나 방법 등에 대해서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사서분들의 도서관을 사랑하는 마음과 열의는 세계 어느 사서들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우리나라 도서관 시설, 전산화, 관리·운영, 수집현황도 세계 주요 선진국 도서관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도서관현황 및 우리나라 자료를 세계 도서관계에 알리고 이들과 협력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됩니다. 세계화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다른 나라 도서관인들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의 도서관계의 위상도 높이고, 국제 도서관계의 다양한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세계 도서관무대에서 국제사서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국제적으로 많은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